

뒷돈 주고 납품 ... 제대로 된 부품일까?

최시중 영장

검찰, 수억 금품수수 혐의 ... 박영준 본격 수사

■ '납품 비리' 영광원전 안전하나

151건 고장·사고 '연관성' 밝혀야

영광원전은 지난 1986년 1호기에 이어 1987년 2호기가 가동된 대표적인 노후 원전 가운데 한 곳이다. 오래될수록 안전사고나 고장 빈도가 높아지고 부품 교체나 장치 점검도 찾아지면서 이들 원전에 대한 납품업체의 로비는 치열할 수밖에 없다. 울산지검 특수부 수사에서 드러난 납품비리도 1978년과 1983년 1호기 가동에 들어간 고리원전(4호기)과 월성원전(4호기), 영광원전 등에 집중됐다. 검찰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비리 연루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울산지검 특수부의 수사로 영광원전 직원들의 납품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전문가와 지역단체들은 이 같은 비리가 그동안 영광원전에서 발생한 잦은 고장·사고와도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영광원전 전경.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영광원전에서는 가동 이후 슬한 안전사고·고장이 발생했다. 이 원전이 납품 부품의 문제인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원전에는 모두 100만개의 부품이 들어가는 만큼 부품 납품비리는 상능과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 전문가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면 된다"며 "납품할 때 뒷돈을 주고 들어가는 부품이 제대로 된 부품이겠냐"고 반문했다.

◇고장·사고 매년 6~7건=지난달 28일 오후 1시23분께 원전 2호기 비상디젤발전기를 시험하기 위해 수동으로 가동했으나 1분14초 후 엔진빙각수 저압력 경보로 자동 정지됐다. 이는 엔진 진동으로 빙각수 저압력 설정치가 풀리는 결과로 조사됐다. 지난 1985년 5월 비상발전기 설치 이후 매달 1회씩 그동안 수백 회의 가동 시험을 해왔으며, 지난 2000년 4월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151건의 사고는 사고·고장에 의해 원자료가 정지된 경우만 해당돼 방사능 누출이나 일부 부품이 파손된 채 가동되는 경

우 등은 제외됐다. 지난 1995년에는 금속성 파편에 의해 핵연료봉이 손상되기도 했고, 1999년에는 6일 사이에 5번이나 가동이 중지된 적도 있었다. 또 2000년에는 1998년 방사능 누출로 보수공사중이던 310명의 근로자가 방사능에 피폭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고, 지난 2009년 영광원전 4호기에 대한 계획예방정비 작업을 벌이던 중 응결 결합이 원인이 돼 파손된 핵연료봉 2개가 발견되기도 했다.

◇설계치 넘어선 핵연료 사후처리=영광원전 민간환경감시센터에 따르면 지난 1986년 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한 영광원전은 기존 호기당 678~746다발(1다발 236개)의 핵연료를 보관할 수 있는 임시저장 시설을 갖춰 6기에 임기 보관 가능한 핵연료는 4248다발이지만 지난 2월 말 기준 원전 내 보관중인 사용 후 핵연료는 4671다발로 이미 설계치를 넘어섰다.

원전 측은 설계치 이상의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하기 위해 격차 간격을 좁게 만들어 같은 공간에 더 많은 연

료를 넣을 수 있도록 하는 '조밀팩' 공사를 했지만 오는 2018년이 되면 보관 장소가 부족하다.

영광원전 1·2호기 출력 증강 문제가 남아있다. 영광원전은 2007년 원전 1·2호기 출력증강에 따른 정부의 승인을 받았으나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현재까지 사업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출력 증강은 발전소가 보유한 설비 안전 여유도 범위 내에서 터빈 증기 유량을 증가시켜 원자로와 전기 출력력을 약 4.3% 향상시키는 작업으로 현재 95만kW로 운전 중인 영광원전 1·2호기에 대해 출력 증강이 이뤄지면 100만kW대로 운전할 수 있다. 주민과 지역단체는 "정부와 영광원전 측이 출력 증강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온배수 저감방안이나 발전소 방재대책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핵단체 반발= '핵 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은 28일 오전 영광원전 앞에서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 1주기를 맞아 시민안전점검단 구성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고 '핵 없는 세

■ 영광원전 주요 사고 일지

1995년 7월	영광 4호기 금속성 파편에 의한 핵연료봉 손상(2개 확인)
1996년	영광 2호기 냉각재가 누출되고 몇 주 후 주변을 오염시킨 뒤애야 알려짐
1997년 06월	영광 2호기 제어봉 부품 파편에 의한 핵연료봉 손상(2개 확인)
1999년	영광 2호기 3월23일~28일 동안 5차례 가동 중지
1999년	영광 3, 4호기 497개의 미확인용접 확인, 일반 배관용접의 불량률(3.3%)보다 미확인용접의 불량률(59%)이 18배나 더 높은 것으로 확인
2000년	영광 2호기 1998년에 방사능 누출로 보수공사 중이던 310명의 노동자가 방사능에 피폭된 사실이 감시원에 의해 적발
2003년	영광 5호기 방사성물질 함유된 물 5000톤이 폐수관을 통해 바다로 누출됐지만 5일간 방사능 계속 고장으로 방치됨(6390만 베크렐(Bq))
2004년	영광 5호기 방사성물질 누출이 감지됐지만 재기동을 강행하고 일주일 간 방치
2008년 4, 5월	영광 4호기 핵연료봉 결함 발생
2009년 10월	영광 4호기 계획예방정비작업 중 핵연료봉 파손(2개), 열전달완충판 이탈 확인
2012년 3월	정부 합동 점검단이 3월 28일 영광원전 2호기를 특별 점검하던 중 비상디젤발전기 1대(A)가 작동을 멈추 5시간 만에 복구

(환경운동연합 제공)

상 광주·전남 선언대회' 후 광주까지 30km 행진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전남지역 29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며, 이번에 드러난 영광원전 납품비리에 따른 대책 촉구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체는 영광원전 출력증강 철회, 한국이 자체 개발중인 중소형 원자로인 스마트원자로 실증단지 유치 지지, 수명연장 철회 및 폐쇄 등을 주장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주요 원전 국가별 비상계획 구역 비교

	한국	일본	벨기에	헝가리	미국
예방적보호조치구역	8~10km	8~10km	10km	3km	16km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8~10km	30km	20km	30km	80km
식품제한구역	8~10km	확대계획	나라전체	80km	80km

※한국·일본은 2012년, 기타 국가는 2008년 기준(자료:그린피스)

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린피스는 또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원자력 방재 지침을 개정, 기존의 8~10km 방재구역 범위

를 30km로 확대할 계획이며, 사고 발생 시 즉시 피난이 이뤄지는 5km의 예방적보호조치구역도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부신일보=송현수 기자 songh@

비상계획구역 8~10km서 → 30km로 확대해야

그린피스, "한국 국제 권고 기준 크게 미달"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을 운영 중인 모든 국가가 원전시설에 대한 강도 높은 안전성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테스트 결과 '방사능 누출사고 대비 방재 매

뉴얼'이 허술한 것으로 지적됐다.

그린피스는 26일 오전 11시 부산 영도구 동삼동 국제크루즈터미널에 정박한 조사탐사선인 에스페란자호 선상에서 '후쿠시마 교훈 보고서 발

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방사능 방재계획의 현실'을 고발했다.

그린피스는 "현재 한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고기준을 따르지 않고 일반적으로 8~10km 범위의 비상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한국은 IAEA의 권고기준에 맞춰 현재의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인허가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26일 오후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이 사건의 시행사인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경우 적용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전 위원장은 25일 검찰조사에서 돈의 대가성에 대해 부인했으나 검찰은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시티 전 대표 이정배씨는 지난 2007~2008년 복합유통단지 인허가 청탁을 해달라는 명목으로 건설업체 대표이자 최 전 위원장의 중학교 후배인 브로커 이동용(61·구속)씨에게 11억여원을 건넸고 이 가운데 5억원 가량이 최 전 위원장에게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최 전 위원장은 23일 한 방송 인터넷에서 브로커 이씨에게서 받은 돈을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로 나선 지난 대선 당시 독자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등으로 썼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하루만에 개인용으로 사용했다고 번복했다. 최 전 위원장은

25일 오전 10시 40분께 피내사자 신분으로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나와 14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날부터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수사를 집중했다"면서 "오늘부터는 박 전 차관에 대해 본격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전 차관은 최 전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인허가 청탁과 함께 거액의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 이 전 대표의 진술을 바탕으로 박 전 차관 본인과 가족의 계좌추적을 하는 등 실제로 돈이 오갔는지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25일 오전 박 전 차관의 서울 용산 자택과 대구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해 관련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당시 박 전 차관도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차관이 압수수색 하루 전 대구 사무실을 미리 비웠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압수수색 당시 별다른 게 없어 관계자 협조를 받아 짐을 옮겨놓은 장소를 확인해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왔다"고 전했다.

검찰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박 전 차관을 조만간 소환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도대체 누굴 위한 정부인지 ...

UNIVERSIADE GWANGJU 2015

빛의 날개로 세계의 젊음이 비상한다.
 엠블럼 빛의 날개는 빛의 도시 광주와 무한발전의 '비상'을 기본 컨셉으로, 좌우 날개는 5대양 6대주를 상징하고 빛의 겹침과 발산은 대륙간 젊은이들의 화합과 전진을 염원합니다.

Light Up Tomorrow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기간_2015년 7월 (13일간)
 장소_광주월드컵경기장 등 광주 및 인근 시군 경기장
 주최_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주관_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KUSB),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종목_21개(정식 13개/선택 8개)
 · 정식종목: 육상, 농구, 펜싱, 축구, 체조(2), 수영(3), 테니스, 배구, 유도, 탁구
 · 선택종목: 태권도, 배드민턴, 골프, 핸드볼, 양궁, 사격, 조정, 야구
 규모_170개국 선수단 및 운영진 포함 2만여명

빛의 전령 누리비
 마스코트 누리비는 빛의 날개를 달고 세계를 누비며 인류 미래의 중심이 될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밝혀줍니다.

www.gwangju2015.com